시방세계

불교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 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한국불교의 힘 휴먼릴레이션쉽"

인간관계

주한외국인스님 32명 송광사 2박3일 연수

60살 러시아 명공스님 폴란드인 비구니 명화스님등 32명의 외국인스님들은 이국땅의 낯설음도 잊은채 '지심귀명례' 합장 속에 '자기 찾기'를 서원했다

◇교육원이 주최한 불기 2541년 주한 외국인스님 연수회에 참가한 15개국 32명의 스님은 이번 연수회는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파란 눈. 법의가 왠지 어색해 보이는 몸짓. 5일 어스름 저녁무렵 순천 송광사 대웅보전에 32명 벽안의 스님들이 부처님전에 엄숙히 삼배를 올리고 있다. 교육원이 주한 외국인스님들을 대상으로 5일부터 7일까지 개최한 연수회에 미국, 폴란드 등 15개국 32명의 스님이 한국불교를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들은 한국불교가 훌륭한 수행전통과 교학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속에서 새로운 자아와 부처님 진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한국불교를 찾아온 사람들이다. 왜 스님이 되었느냐고 묻는 것은 우문이다.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 법이 있고 거기에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함이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든, 모두를 위한 것이든간에.

입재식. 헝가리 출신 청안스님의 목탁소리와 통역을 맡은 미국 출신 무심스님의 굵직한 목소리가 조계산 자락에 걸쳤다. 순간 서른 두명의 얼굴엔 긴장감이 돌았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격려사와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의 법어가 이어졌다. 종단 어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폐부를 찌른다.

나이 60에도 불구하고 연수회에 참가한 명공스님(러시아)의 눈가에 보일듯말듯 눈물이 고였다. 이들중 최고령 이지만 출가한지 채 1년이 되지 않는 사미니. 간간히 저는 다리를 곧추세우고 합장 일배일배마다 머리를 무릎아래까지 숙이고 부처님을 바라본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간절하게 했을까. 지난 여름 기자를 만나 "부처님 법을 만나는 순간 그 법속에서 나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던 고백. 러시아에 두고 온 90이 다 된 어머니마저도 부처님 그늘에서 편히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던 명공스님. 저녁예불에서의 명공스님 예불문 염송은 차라리 혼을 부르는 소리에 가까웠다.

다음날, 강의가 이어지면서 무심스님(40·미국)이 바빠졌다. 한국에 온지 어느새 13년. 우리말이 가장 유창한 덕분에 강의통역은 물론 행사진행까지 도맡았다. "13년전 한국에 와서 숭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처음 몇년간은 외로움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음식, 잠자리, 언어소통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스님들과 만나는게 두렵기까지 했으니까요." 고향을 떠나면 그리움은 늘 가슴 한구석을 채운다. 이국땅에서의 낯설음 그리고 고행. 부처님의 염화미소로 위안받았던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펼쳐놓는다.

"수행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전통이 불교가 한국인의 정신적 의지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불교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한국불교의 방향도 제시한다.

다도강습시간. 폴란드 출신의 명화스님(33·화계사 국제선원)은 '차는 마음을 표현하는 음료'라는 설명에 두 눈이 더욱 커진다. 5년전 바르샤바 도암사에서 한국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다. 선에 유난히 집착해 폴란드 이곳저곳의 선 센터를 돌며 정진하기 시작했다. 전문건축사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지만 선과 직업을 병행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선을 택했다. 그리고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1년전 한국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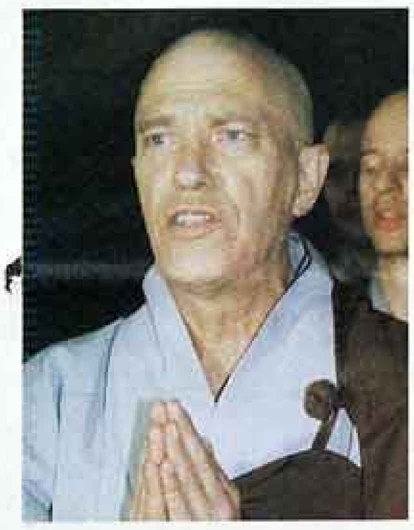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선은 최고입니다. 신라때 형성된 구산선문이래 간화선법이 이어져오기까지 선불교전통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님들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선불교전통속에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교학체계가 제대로 서 있는것 또한 한국불교가 가진 커다란 장점이라고 덧붙인다.

계속되는 강의속에서 30분간의 휴식은 엄하고 짜여진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감로수와 같은 것이었다. 달콤한 휴식. 한국에 온지 3년째인 화계사 국제선원 도문스님(48·미국)은 그 휴식마저도 잊은 채 한국불교의 휴먼 릴레이션쉽(Human Relationship·인간관계)에 대해 참가자들과 토론을 벌인다.

"한국불교 속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은사와 제자의 관계,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국사를 유지했던 것이 불교의 힘이라면 그런 불교를 지탱해준 것은 다름아닌 '휴먼 릴레이션쉽'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준다.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싱가폴, 중국, 홍콩, 말레이지아 등을 다녀 보았지만 한국불교만큼 그들 나라의 불교에 매력을 느낄 수는 없었다. 사라져 가는 동양의 미덕이 한국불교 속에는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같은 장점에서 찾고 있었다.

연수내내 늘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듯했던 명도스님(53·미국)은 "한국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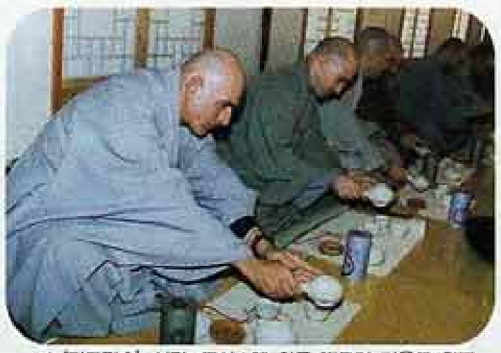
글=한명우 사진=고영배 기자



◇부처님법 속에 새로운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명공스님.

◇무심스님은 한국불교의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살아 숨쉬는 한국선불교 전통 속에서 부처님 숨결을 느낀다"는 명화스님.



◇'다도강습' 시간. 조심스레 차를 따르며 마음도 함께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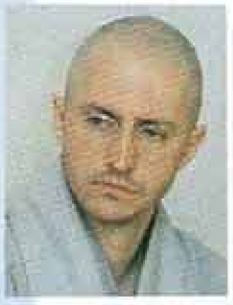
인터뷰 美 홍법원서 수행 현각스님

미국 예일대 학부와 하버드 대학원 졸업. 한마디로 사회적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학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현각스님(33·미국 홍법원).

현각스님은 우연한 기회였지만 바로 그 기회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가톨릭집안에서 자랐고 싫오하다고 여겼던 서양철학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혼돈시키는 정신적 방황은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도서관에서 숭산스님이 쓴 불교에 관한 책을 보게 됐습니다. 첫장부터 읽어나가는 순간 그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희열이 일순간 나를 뒤덮었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이상향이 바로 그 책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학부에서는 서양철학을, 대학원에서는 비교종

"서양철학의 한계 느끼던중 한국 禪불교 접한건 행운"



교학을 공부한 현각스님은 불교를 만나게 된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나를 바로 알지 못하고는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감쌀 수 있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책은 내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내가 짐작키 어려운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그때였습니다."

마침내 현각스님은 93년 중국 남화사에서 출가했다. 선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가야한다는 주위의 권유에 이끌려서였다. 깨달음을 곧 얻을 수 있을것만 같았다. 그러나 차츰 한국 선(禪)불교로 관심이 옮겨졌다. 중국으로부터 일제 종맥을 이어왔지만 한국불교 나름대로 발전시켜온 선의 전통은 개성과 깊이가 살아있다는 생각때문이었다. "한국불교는 그 폭이 매우 넓습니다. 또 육조혜능 선(禪)의 전통이 가장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훌륭한 고승들이 많은 것도 한국불교의 자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움도 털어놓았다. "미국엔 티벳, 일본, 중국불교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한국불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도 왜 알리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뭣고'를 화두로 삼고 있다는 현각스님. 두번째 왔지만 송광사에 오면 역대 한국고승들의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며 미국에 돌아가면 열심히 한국불교를 홍보할 생각이라고. 그래서 다음에 한국에 올 때는 많은 스님들과 함께 와서 직접 한국불교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입재식에서 화두 하나 받아든다.

◇'승가는 질서' 공양간으로 향하는 질서정연한 안행.

취재수첩 한국불교의 깊이에 연신 "Wonderful"

이번 외국인스님 연수교육은 2박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참가자들에겐 한국불교를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우리나라 삼보사찰중 하나인 승보사찰 송광사에서 열렸다는 점도 연수를 뜻깊게 했다. 한국불교사상 외국인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가 처음이라는 의미도 중요했지만 한국에 있으면서도 접할 수 없었거나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들을 개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스님들에게는 더욱 즐거운 일이었다.

'한국의 선종사상'등 7개 강의는 차질없이 진행됐다. 이중 가장 인기를 끈 강의는 선혜스님(불교전통문화원장)의 '다도강습'이다. 찻잔을 잡는 방법이나 다구배열, 그리고 차를 마시는 예법을 익히고, 차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모두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다. 차 한잔 속에도 불법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표정들이었다.

대목장 신영훈씨의 한국불교문화를 담은 슬라이드 강의도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전통사찰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들은 비록 필름상이었지만 불국사, 통도사 등을 보며 'wonderful'(훌륭하다)을 연발했다. 또 '한국 사찰조형의 특징' 강의(현고스님·송광사 주지)에서 "한국사찰건축은 화합을 중요시한다"는 설명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도.

새벽 3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강의가 계속되는 동안 휴식시간은 강의끝마다 주어진 30분에 불과했다. 오후들어서는 다소 피로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으나 흐트러짐없는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두 번씩의 아침·저녁예불 그리고 백팔대참회는 매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연수가 끝난 후 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지길 희망했다. 한국불교에 대한 신뢰감을 확고히 한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으며, 한국불교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